**<기조발표\_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_추상미**

1.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작기 간증**
2. **기조발표\_PPT: 킹덤빌더 브살렐**

 (1) 장인 브살렐의 정체성

\_애굽 신전에서 신전기물을 만들던 장인 브살렐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임재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성막을 짓는 총 감독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예술적 장인에 가까운 인물로써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다.

그는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서 받은 후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 기물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 기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이후에 브살렐에게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수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은 예술 장인 공동체를 만들어 제자를 길러내 예배와 작업을 함께 수행했다.

성경 본문에 보면(출애굽기31:1-5)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브살렐의 정체성\_예배자/선지자/연구자/기술자/교육자(출 31:1-5)

(2)이 시대의 브살렐들에게 요구되는 것

\_문화예술 콘텐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복음의 진리로 접근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시대의 통찰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성과 전문성인데, 영성은 시대를 복음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 전문성은 미학적 표현 능력과 테크닉을 포함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창조에 동참하고 거기로부터 창의성을 길어 올리는 사역을 의미한다.

(3) 보아스 필름의 지향점\_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

\*모자이크 영성\_상처 난 조각들이 모여 질서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 성되는 것.

\_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이기도 한, 모든 국가와 인종과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림(요한계시록 7장9-10) 에서 알 수 있듯, 분열되고 갈라져 상처 입은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보아스 필름은 ‘상처입은 치유자’들로부터 출발한 ‘상처의 연대’ 이야기(기원은 예수님)를 지속적으로 영화로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이다. 한국 역사의 격변기, 해방공간등에서 특별히 많은 실화 자료들이 존재한다. 당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을 발굴할 계획이다.